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힘내라 대한민국
	배포일시	2020. 8. 7.(금) / 총 3매(본문 3매)	
담당부서 주거재생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지혜, 사무관 강치득, 전문위원 강한림 • ☎ (044) 201-4940, 4943	
담당부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	담 당 자	• 선임연구위원 서수정, 부연구위원 임보영, 연구원 박석환 • ☎ (044) 417-9645, 9876, 9659	
보 도 일 시	2020년 8월 10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 9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“동행사업(동네행복사업)” 으로 우리집과 골목길 탈바꿈 시동

-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뿐 아니라 마을단위 안전한 주거환경 기대
- 집수리 패키지 지원…21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확대 적용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(소장 박소현, 이하 ‘AURI’)는 **“동행사업*”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확정**하여 8월 7일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.

* (개념) **주택단위의 집수리**와 **골목길 환경정비를 연계**한 **마을단위의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사업**으로 **주택 상태와 거주자의 요구** 등에 따른 **맞춤형 집수리를 지원**하는 사업

☞ “**동행**사업”은 ‘**동**네를 **행**복하게’, ‘전문가와 함께’한다는 의미를 내포

○ 지난 6월 동행사업 시범사업 **공모 결과 총 17개 지자체가 신청**한 바 있으며, 주거환경의 개선가능성, 사업추진체계 역량,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 중 **총 6곳*을 최종 선정**하였다.

* **서울 도봉구**(도봉2동 키움 프로젝트), **경기 화성시**(황계동 정조대왕 능행차마을), **강원 원주**(봉산동 도시재생), **충남 부여**(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동남리 황교마을), **전북 전주**(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), **경북 영주**(남산선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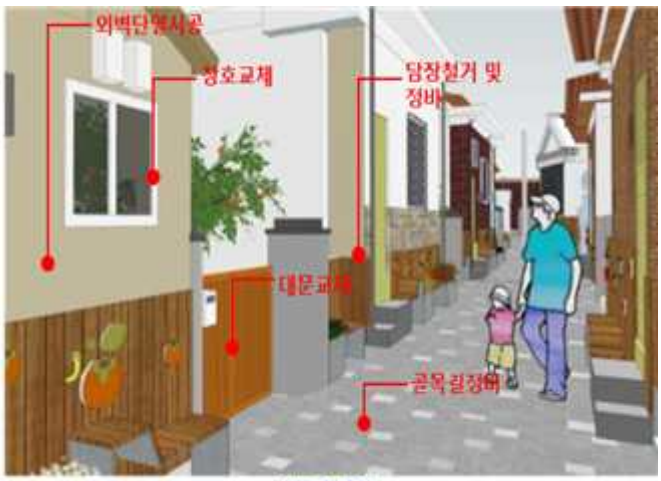
○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**집수리 패키지 지원**과 더불어 연말까지 **사업성과 분석**을 진행할 예정이며, 이를 토대로 마련된 **‘동행사업 지침(가이드라인)’**을 통해 **내년부터는** 새로운 집수리 모델을 **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확대 적용**할 계획이다.

□ (**추진배경**) 그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집수리 사업은 ‘16년도 선정 사업부터 **보편적 공간복지 실현,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** 및 **에너지 효율 개선**과 같은 **공익적 효과**를 고려하여 추진되어 왔으나,

- 개별 주택 단위 중심으로 추진되고 **외부 미관 정비에 중점**을 두어 **주거환경개선 효과에는 일부 한계**가 있었다.

○ 이에 개별 주택뿐만 아니라 **골목길 경관개선 및 환경정비, 마을 단위 주거환경 정비**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, **해당 주택의 성능 개선에도 주안점**을 두는 **새로운 집수리 모델**을 제시할 예정이다.

[변경전]



[변경후]

주택단위 집수리에서 골목길, 마을단위로 재생범위 확장

□ (**유형**) 해당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①**경관관리 연계형**, ②**에너지관리 연계형**, ③**공공기여형**, ④**거점시설 연계형**, ⑤**사회공헌활동 연계형** 집수리 사업 등 5개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.

* (**경관관리 연계형**) 건축협정, 경관협정 체결을 통해 마을 경관 개선
(**에너지관리 연계형**) 에너지자립마을 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시설 설치 등과 연계
(**공공기여형**) 마당개방, 1층 빈점포 제공 등 주민의 공공기여를 결합
(**거점시설 연계형**)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과 골목정비, 인접주택의 집수리 연계
(**사회공헌활동 연계형**) 기업, 지역활동단체, 주민공동체 등의 활동과 연계

□ (**절차**)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①**주택전수조사 및 수요파악**, ②**주택점검과 진단**, ③**집수리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**, ④**공사**, ⑤**유지관리** 등 **집수리 全 단계**에 **집수리 점검단(공공건축가, 에너지진단사, 집수리시공전문가 등)이 참여**하여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.

□ 한편, 국토부와 AURI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전체 **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의 새로운 집수리 모델** 확산을 위한 **지침(가이드라인) 및 제도개선방안**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백원국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"'**동행사업'을 통해 새로운 집수리 모델이 안착**되면 개별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**마을단위의 안전한 주거환경**이 조성되고,

○ 가로주택정비, 소규모재건축, 자율주택정비 등이 어려운 **골목길에 면한 노후주택지역의 환경이 크게 개선**될 것으로 기대"한다고 말했다.

○ 아울러, "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 제고는 **탄소저감 및 그린리모델링 정책기조에도 부응**하며, 지역 기반의 소규모 주택산업이 활성화되어 **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**"이라고 덧붙였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강치득 사무관(☎ 044-201-4940),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서수정 선임연구위원(☎ 044-417-9645), 임보영 부연구위원(☎ 044-417-987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